

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준엽*, 김경화*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혁신수용 관점에서 Davis의 기술수용모형을 응용하여 만족도와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위험과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학습자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무적·시간적 기회비용과 학습자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 Analysis on Students' Satisfaction for the Advanced Course to Confer Bachelor's Degree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Jun-Yub Lee*, Kyung-Hwa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rying degrees of satisfaction of the individual student in the Advanced Course to Confer Bachelor's Degree by personal variable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s expected to provide a strategical point to establish a way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rate in the students enrolled in the Advanced Course to Confer Bachelor's Degre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at developing and offering the best educational services of university to support student's motivation in continuing education.

Key Words : TAM1, the Advanced Course to Confer Bachelor's Degree, Usefulness, Ease of use

* 인덕대학 비서과

· 제1저자(First Author) : 이준엽 · 교신저자(Correspondent Author) : 이준엽
· 접수일(2009년 12월 10일), 수정일(1차 : 2010년 1월 15일), 게재확정일(2010년 1월 20일)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새로운 학문과 지식에 대한 평생학습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이에 전문대학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추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해온 동시에 새로운 교육수요의 창출과 평생직업 교육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왔다. 1998년부터 전문대학을 졸업한 재직경력자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년 이하의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었던 전공심화과정이 2007년 7월 13일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인가를 받았다.

따라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기회 제공, 산업체 경력자의 직무능력 향상 재교육,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기회 제공, 산업체 경력자의 직무능력 향상 재교육, 그리고 학교와 일터로의 순환교육체제 및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인가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2008학년도 147개 전문대학 중 66개(44.9%) 대학이 인가받은 바 있으며, 2009년 현재 65개(44.2%) 대학에서 209개 학과가 신입생을 모집하여 2,916명의 학습자를 선발, 지원을 65.7%, 등록을 43.3%을 나타내었다.

표 1. 2009학년도 모집현황
Table 1. Recruiting status at 2009
(단위: 대학수, 명, %)

대학 수	모집정원	지원인원	등록인원	지원율	등록율
65	6,735	4,428	2,916	65.7	43.3

전공심화과정 시행 첫해의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법의 개정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를

거쳐 짧은 입시기간과 부족한 홍보를 감안한다면 비교적 높은 등록율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홍보활동과 높은 성과, 학습자 만족도 향상을 바탕으로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1]. 학생의 학교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면 학교에 대한 지원자가 많아지고, 중도 탈락자가 적어지며 출석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2][3].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4]. Ryan & Deci[5]의 연구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만족감이 클수록 학생들은 대학생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 속에서 더욱 잘 적응하고 보다 높은 성취도와 내재동기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행 첫해를 지나고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보고자 혁신수용 관점에서 Davis의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6]을 수정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의 만족도와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위험과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전공심화과정 학습자가 인지하는 전공심화과정 학습의 용이성, 유용성 및 위험요인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면, 이는 전공심화과정의 성공적인 정착뿐만 아니라 전공심화과정 학습자의 대학생활과 성취동기 및 내재동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이 가지는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

용성 및 인지된 위험요인이 전공심화과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서울소재 A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실증적 분석단계를 거쳤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의 인지된 유용성과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의 인지된 용이성과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의 인지된 위험요인과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혁신확산이론,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용이성

Rogers[7]의 혁신확산이론에 따르면 혁신의 수용 단계는 혁신자 집단(innovators), 초기 수용자 집단(early adopters), 전기 다수 수용자 집단(early majority), 후기 다수 수용자 집단(late majority), 지각 수용자 집단(laggards) 등 5단계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매체나 기술의 채택 여부에 관해 혁신확산이론은 혁신자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혁신자 집단의 행위는 초기 수용자 집단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 전기 다수 수용자 집단은 초기 수용자 집단의 수용반응을 관찰하면서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론주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초기 수용자 집단은 잠재 수용자의 모방을 이끌어 확산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처음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이고, 짧은 입시기간과 부족한 홍보를 감안한다면 확산 초기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혁신확산이론상의 혁신자 집단에 해당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혁신기술의 수용을 설명하는 Davis[8]의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에서는 혁신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람들이 지각하는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사용의 용이성(perceived easiness)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TAM은 Fishbein and Ajzen[9]이 정립한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6][8]. 사회심리학에서 출발한 TRA는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이론적 체계이며, TAM은 TRA의 신념(belief)-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의도(behavioral intent)-행위(actual behavior)의 인과관계 체계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혁신 수용과정을 적용하였다.

TAM은 사용자의 혁신 수용과 사용행동을 설명하는 간단하면서도 설명력이 매우 높은 모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수용이 두 가지 주요 믿음, 즉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의 용이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인지된 유용성이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향상되는 가치의 정도를 의미하고, 인지된 용이성이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에 얼마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낸다[10][11].

TAM에 따르면,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의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며, 사용의 용이성과 외부변수의 결합 형태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유용성과 사용의 용이성은 외부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TAM에 따르면 혁신은 이용하기 쉬울수록, 유용하다고 지각되면 될수록 이용에 대한 태도와 의도는 더 긍정적으로 되고, 혁신의 이용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한편 TAM을 이용한 학습자 만족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엄명용, 김미량[12]의 연구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플로우, 인지된 유희성이 학습목적의 PMP 사용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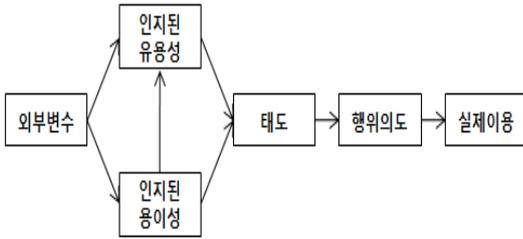


그림 1. 기술수용모형(TAM)
Fig 1. Technology Acceptance Model

2.2 인지된 위험

제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일반인은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과 기대되는 손실을 지각하며[13], 이러한 위험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인지된 위험은 소비자 행동 또는 마케팅 연구의 주요한 주제가 된다.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은 이용행위의 결과에 대한 일반인의 주관적인 불확실성과 이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반인의 주관적인 기대치로 정의된다[14][15]. 따라서 인지된 위험은 일반인이 서비스 이용 의사결정과정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성과를 의미하게 된다[16].

인지된 위험의 유형을 파악하는 기존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Cunningham[17]은 일반인이 인지하는 위험을 금전적 손실에 대한 재무적 위험(financial risk), 안전에 대한 신체적 위험(physical risk), 다른 사람의 평가와 관련된 사회적 위험(social risk), 자아 이미

지와 관련된 심리적 위험(psychological risk)으로 구분하였으며 Schiffman et al.[18]은 이 위험구분에 추가하여 기능과 관련된 성능적 위험(performance risk)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인지된 위험의 유형과 수준은 일반인의 특성이나 서비스의 범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증분석 결과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19].

인지된 위험이 일반인의 이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최근 혁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일 외[16]는 인지된 위험을 심리적 위험과 재무적 위험으로 구분하고 인터넷 बैं킹의 이용태도와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 김해룡 외[20]는 컨버전스 제품과 인지된 위험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서 기능적 위험은 구매의도와, 감성적 위험은 구매자 태도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2.3 학습 만족도

만족에 대한 연구는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심리학, 경제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을 일종의 고객으로 간주하고, 만족에 대한 연구를 경영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뒤 이를 교육학적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만족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거래 특유적 고객만족으로서 개별거래에 대한 성과를 기대와 비교함으로써 만족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으로 만족의 크기는 제공된 서비스를 지각하는 정도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관점이다[21]. 두 번째는 누적적 고객만족으로서 개별거래 각각에 대한 경험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평가결과를 가지고 고객만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22].

본 연구에서는 고객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으로 보았으며, 학습자의 만족은 일회적인 학습의 결과로 평가되는 거래 특유적 만족의 관점보다는 반복 거래의 누적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형성·유지되는 누적적 만족이 개념상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교육학 분야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하게 만족요인을 최종 종속변수로 하여 교육적 환경에 적용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최경식·김재열[23]은 대학에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교육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교육 서비스 지향성과 학생 만족 및 조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지향성과 대학의 내부 서비스 품질은 정의상관관계를 가지고, 또 학생 만족과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개별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김계현[24]은 학과 및 전공에 불만족하는 학생,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 및 진로 확실성이 낮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혜숙[25]의 연구에서도 계열 및 학과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시행 첫 해의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을 혁신자 집단(innovators)으로 보고, 혁신확산이론을 수정하여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위험이 전공심화과정 학습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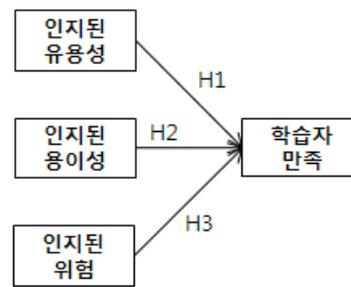


그림 2. 연구 모형
Fig 2.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Davis의 TAM에 의하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신념변수는 혁신적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 된다. 이후 TAM에 대한 대부분의 후속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유용성과 용이성 그리고 수용에 대한 관계가 지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M에서 주장하는 혁신기술의 수용을 새로운 제도로서의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수용으로 대체하여 인지된 유용성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한 후 사회적 보상, 재무적 보상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인지된 용이성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하는 것이 어렵지 않거나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한편 인지된 위험은 학습자 만족의 향상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위험 유형 가운데 재무적 위험과 시간적 기회비용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된 위험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하기 위한 재무적·시간적 기회비용이 크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학습자 만족을 누적적 개념에 따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들이 재학 중 경험한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공심화과정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학습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은 학습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인지된 위험은 학습자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2. 연구변수의 측정 항목
Table 2. Measurement items of research variables

연구 변수	측정 항목
인지된 유용성	전공심화과정 졸업후의 사회생활/직장생활 유용성 지각
	전공심화과정 졸업후의 임금인상에 대한 확신
	전공심화과정 졸업후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확신
인지된 용이성	직장생활과 학업 병행에 대한 용이성 지각
	전공심화과정 학업수행 용이성 지각
	전공심화과정의 우수한 학업성취도에 대한 확신
인지된 위험	전공심화과정의 재무적 위험 지각
	전공심화과정의 시간적 위험 지각
학습자 만족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전공심화과정 교과목 만족도
	전공심화과정 교수진 만족도

IV. 연구방법

4.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A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110부의 설문지를 배포

하였다. 회수된 총 67부의 설문지(회수율 60.9%) 가운데서 불성실하거나 무응답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최종 63부의 설문지를 선정하여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응답된 자료는 사회과학용 통계패키지인 SPSS 1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이용된 표본 총 63개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2.4%, 여성이 47.6%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25세 이하가 27.4%, 26세에서 30세까지가 30.2%, 31세에서 35세까지가 7.9%, 36세에서 40세까지가 34.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 인구통계적 분석
Table 3. Analysis of demographics

구분	항목	비율
성별	남	52.4%
	여	47.6%
대학구분	주간반	38.1%
	야간반	34.9%
	산업체반	27.0%
입학동기	학사학위 취득	58.7%
	신기술 습득	6.3%
	전문성 향상	17.5%
	직무능력 향상	1.6%
	이직 대비	12.7%
	주의의 권유	1.6%
	기타	1.6%
연령	21세-25세	27.0%
	26세-30세	30.2%
	31세-35세	7.9%
	36세-40세	34.9%
재직여부	재직	90.5%
	비재직	9.5%
인지경로	가족	1.6%
	선후배/친구	17.5%
	학과 교수	61.9%
	대학 홍보책자	9.5%
	대학 홈페이지	6.3%
	기타	3.2%

표 4. 요인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factor analysis

설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통성 (Communalities)	Cronbach's h' Alpha
		만족도	유용성	용이성	저해요인		
만족도	11	0.914	0.122	0.335	0.043	.848	.850
	12	0.844	0.346	0.245	-0.197	.794	
	10	0.804	0.264	0.486	0.021	.679	
유용성	3	0.188	0.902	0.117	-0.068	.818	.719
	2	0.193	0.882	0.145	-0.155	.789	
	1	0.390	0.610	0.048	0.108	.491	
용이성	4	0.224	0.158	0.852	0.060	.774	.700
	5	0.593	0.052	0.809	0.057	.735	
	6	0.561	-0.070	0.637	0.411	.663	
위험요인	9	-0.005	-0.019	0.193	0.838	.720	.610
	7	-0.093	-0.138	-0.063	0.809	.692	
고유치(Eigenvalue)		3.573	1.882	1.488	1.030	*분산율= 고유값/문항수	
설명분산		32.480	17.106	13.529	9.361		
누적분산		32.480	49.585	63.114	72.475		
분산율*		1.191	.627	.496	.515		
분산율* 누적값		1.191	1.818	2.314	2.829		

한편 대학 재학 당시 주야구분은 주간반이 38.1%, 야간반이 34.9%, 산업체위탁반이 27.0%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직장 재직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는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가 90.5%로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동기는 학사학위 취득이 58.7%였으며, 전공심화과정을 인지한 경로는 학과 교수를 통한 안내가 61.9%로 나타났다.

V. 연구결과

5.1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법의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설문내용의 변수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각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 분석은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일반적인 신뢰도 척도인 Cronbach's α 의 계수가 모두 0.8을 넘으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22].

또한 측정척도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의 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독립변수의 경우 비직각회전(Oblique rotation)의 방법 중 하나인 Promax(Kappa: 4)를 이용하였다. 요인적재치

는 0.5이상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저해요인의 8번 측정항목이 0.4 미만의 공통성(communality)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요인분석결과, 모든 측정 항목에서 공통성이 0.4 이상, 요인적재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영향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약 72%로 개념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2. 다중공선성 확인

5.2.1.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상관분석 중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상관관계 분석결과
Table 5.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만족도	유용성	용이성	저해요인
만족도	1.000			
유용성	.254*	1.000		
용이성	.446**	.051	1.000	
위험요인	.040	-.127	.154	1.000

주) ** P<0.01, * P<0.05

5.2.2.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계수(VIF)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의 값이 1에 가까우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0에 가까울수록 다른 변수들과 그 설명력이 많이 겹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공차한계의 역수로 계산되며 10을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6에서와 같이 독립변수들 중 가장 낮은 공차한계는 저해요인이 0.958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 역시 저해요인이 1.0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독립변수의 공차한계가 0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 또한 10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분석결과
Table 6. Results of multicollinearity analysis

변수명	공 선 성 통 계 량	
	공 차 한 계 (Tolerance)	분 산 팽 창 계 수 (VIF)
유용성	.979	1.022
용이성	.971	1.030
위험요인	.958	1.044

5.2.3. 연구가설 검증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한 각 성분들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결과(표 7), 용이성($\beta=.434$)이 $\alpha=0.01$ 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용성($\beta=.233$)은 $\alpha=0.05$ 의 유의수준에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이 높을수록 학습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H1과,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이 높을수록 학습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H2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인지된 위험이 높을수록 학습자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3은 기각되었다.

표 7. 회기분석 결과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요 인	분 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sig. T
	B	표준오차	beta		
constant	-.023	.112		-.208	.836
유용성	.244	.119	.233	2.046	.045*
용이성	.434	.114	.434	3.797	.000**
위험요인	.003	.115	.003	.027	.978

R Square= 0.253 F = 6.649 Sig. F = .001

* : p<0.05, ** : p<0.01

5.2.4. 추가분석

본 연구 모형의 회기분석결과 유용성과 용이성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표 8.)과 같다.

응답자들은 반의 유형에 따라 주간반, 야간반, 산업체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을 구분하여 각각 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간반, 야간반, 산업체반으로 갈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지고 있으며(.264, .363, .477), 각 반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주간반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간반에서는 유용성과 용이성이, 산업체 반에서는 용이성이 각각 신뢰수준 $\alpha=0.05$ 의 범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2009년 시행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

정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소재 A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이 학습자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한 후 사회적 보상, 재무적 보상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습자들의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공심화과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기대하고 인식하는 전공심화과정의 유용성 향상이 중요하며, 나아가서 전공심화과정 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개선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인지된 용이성이 학습자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하는 것이 어렵지 않거나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심화과정 학습의 용이성 향상을 위한 사이버 강좌의 개발, 학교측의 행정적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8. 추가 회기분석 결과
Table 8. Results of additional regression analysis

요 인	요인	분 석					R Square (F, sig)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eta	T	sig. T	
		B	표준오차				
주간반	constant	0.357	0.184		1.942	0.066	.264 (2.386, .099)
	유용성	0.356	0.183	0.418	1.947	0.066	
	용이성	0.121	0.198	0.130	0.611	0.548	
	저해요인	0.293	0.252	0.227	1.162	0.259	
야간반	constant	0.123	0.150		0.820	0.423	.363 (3.415, .040)
	유용성	0.438	0.183	0.493*	2.394	0.028	
	용이성	0.420	0.162	0.519*	2.588	0.019	
	저해요인	-0.074	0.130	-0.112	-0.571	0.575	
산업체반	constant	-0.760	0.269		-2.826	0.014	.477 (3.952, 0.33)
	유용성	0.493	0.296	0.352	1.668	0.119	
	용이성	0.559	0.223	0.527*	2.502	0.026	
	저해요인	-0.150	0.210	-0.148	-0.716	0.487	

* : p<0.05, ** : p<0.01

셋째, 재무적·시간적 기회비용과 학습자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요인인 재무적·시간적 기회비용보다는 학습자들이 기대하는 전공심화과정의 가치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내실있는 전공심화과정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만족감이 클수록 대학생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 속에서 더욱 잘 적응하고 보다 높은 성취도와 내재동기를 나타내게 되므로[21] 전공심화과정 학습자들의 만족도 향상은 전공심화과정 제도의 정착뿐만 아니라 교육이 가지는 본질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일반화에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 및 여러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양한주, 한재석, 윤석무, 황광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실태 평가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8. 6.
- [2] Verkuyten, M., & Thijs, J. R. A. J., "School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Performance, Peer Relations, Ethnicity and Gender",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9, pp. 203-228, 2002.
- [3] Willms, J. D., "Student Engagement at School: A Sense of Belonging and Participation", Results from PISA

- 2000, Retrieved July 17, 2006 from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http://www.pisa.oecd.org/dataoecd/42/35/33689437.pdf>, 20003.
- [4] 김양분, “학생용 및 학부모용 학교 교육 만족도 조사 도구 개발”, *교육평가연구*, 제2권, 제3호, pp. 1-27, 2007.
- [5] Ryan, R. M., and Deci, E. L.,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pp. 68-78, 2000.
- [6] Davis, F. D., Bagozzi, R. P., and Warshaw, P. R.,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ence*, Vol. 35, No. 8, pp. 982-1003, 1989.
- [7] Rogers, E. M., *Diffusion of Innovations(4th Ed.)*, New York: Free Press., 1995.
- [8] Davis, F. 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 13, pp. 319-340, 1989.
- [9] Fishbein, M. & Ajzen, I.,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Reading, MA., pp. 311-315, 1975.
- [10] Karahanna, E., Straub, D. W., and Chervany, N. L., "Information technology adoption across time: a cross-sectional comparison of pre-adoption and post-adoption beliefs", *MIS Quarterly*, Vol.23 No. 2, pp.183-213, 1999.
- [11] Venkatash, A.,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Personal Computers in Homes: Adoption Determinants and Emerging Challenges", *MIS Quarterly*, Vol. 25, No. 1, pp. 71-102, 2001.
- [12] 엄명용, 김미량, “학습목적의 PMP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10권, 제1호, pp. 77-88, 2007.
- [13] Cox, D. F. and Rich, S. U., "Perceived risk and consumer decision making: the case of telephone shopping", *Journal of Marketing*, Vol. 1, pp. 32-39, 1964.
- [14] 전성률, 허종호, 강석준, “인터넷 쇼핑물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위험 지각과 브랜드와 가격의 상대적 중요성”, *소비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pp. 19-32, 2003.
- [15] Stone, R. N. and Gronhaug, K., "Perceived Risk: Future Considerations fir the Marketing Discipline",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 27, pp. 39-50, 1993.
- [16] 유일, 김재진, 김경애, “인터넷뱅킹 채택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6권, 제1호, pp. 19-25, 2004.
- [17] Cunningham, S. M., *The Major Dimensions of Perceived Risk*, In *Risk Taking and Information Handling in Consumer Behavior*, pp. 82-108,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 [18] Schiffman Leon G. and Leslie Lazar Kanuk, *Consumer Behavior*, 5th edition, Prentice Hall, 1994.
- [19] 전성률, 허종호, 강석준, “인터넷 쇼핑물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위험 지각과 브랜드와 가격의 상대적 중요성”, *소비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pp. 19-32, 2003.
- [20] 김해룡, 홍신명, 이문규, “컨버전스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 *한국마케팅저널*, 제7권, 제1호, pp. 1-20, 2005.
- [21] Churchill, G. A. Jr. and Supernant, C., “An Investigation into the Determinants of Customer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9, No 1, pp. 491-504, 1982.
- [22] 박광식, “대학의 특성화 교육서비스가 학습자 만족과 취업기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즈니스리뷰*, 제2권 제 1호, pp. 25-45, 2009. 4.
- [23] 최경식, 김재열, “대학의 교육서비스 지향성과 고객 만족, 고객성과와의 관계”, *경영교육논총* 제41집, pp. 217-242, 2006.
- [24] 김계현, 김혜란, 손진희, 이상균, 이지수, “서울대학생의 학업성취과정”, *학생연구*, 제30권, 제1호, pp. 18-37, 1995.
- [25] 한혜숙, “지방대학교육의 교육만족도 분석”, *교육행정연구* 제21권, 제3호, pp. 379-399, 2003.
- [26] 이상설, “일주기리듬에 의한 병원근무자들의 수면과 사회생활 평가”,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제4권, 제2호, pp.23-30, 2009.



이준엽(Jun-Yub Lee)

1994년~1996년 Deloitte Touche Tohmatsu
International 컨설턴트

1996년 ~1999년 조흥은행 경영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999년~현재 인덕대학 비서과 부교수

※ 관심분야: e-비즈니스 전략, IT enabled Innovation
and Diffusion, KMS



김경화(Kyung-Hwa Kim)

1987~1989년 The Bank of New York,
Seoul Branch 심사부 근무

1990년~1998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
학 비서학과 강사

1999년~현재 인덕대학 비서과 부교수

※ 관심분야: 비서학 교육과정개발, 교수방법론, 평생교육